

[제2017-40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
배포일시	2017.6.9 (금)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2017 ARI Project <한국예인의 명작 · 명무전> 공연

無風 . . . 한국춤인들의 명부 큰 축환



- ▶ 공연명 :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韓國藝人の名作·名舞展 (한국예인의 명작 · 명무전)
(Performance of Dance Masterpieces by Great Korean Dancers)
- ▶ 일시 :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Korean American Dance Association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네 번째 무대로 Korean American Dance Association (회장 김응화)와 함께 <한국예인의 명작·명무전> (Performance of Dance Masterpieces by Great Korean Dancers)을 6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韓國藝人的 名作·名舞展 (한국예인의 명작·명무전)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송미숙(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이수자), 양승미(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전)한국문화재단 예술단 예술감독) 및 이경림(이경림무용단 단장, 경기국악제 대상), 이해원(전북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이수자, 아움무용단 단장) 등 한국중견예술인들과 한국전통무용을 현지 주류사회에 알려온 김응화(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전통무형문화 해외명예 전승자), 이순영(이순영 우리춤연구소 원장) 및 김응화무용단 등 미주지역 공연가들이 참여한다.

공연에서는 안성의 살풀이춤인 흥애수건춤(송미숙), 쇠춤(양승미), 원향지무, 산조(이경림), 전주부채춤, 장고춤(이해원), 승무(김응화), 이매방류 입춤(이순영), 모듬북(김응화무용단) 등 전통춤 레파토리로 전통의 멋과 흥을 관객과 함께하여 문화적 소통과 공감의 귀한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한국예인의 명작명무전’의 총예술감독 송미숙 교수는 한국의 전통무용과 창작무용계에 중견무용가로 1994년에 설립된 한국예푸리에술원 이사장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공연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미주지역 무용가 김응화 선생은 LA에서 1980년부터 37년 동안 꾸준히 2세, 3세 자녀들에게 우리의 춤사위를 통한 뿌리교육을 제공하면서 수백명의 제자를 배출한 것은 물론 미주류사회에 한국의 전통예술을 알리고 타커뮤니티와의 문화교류를 위해 기여해왔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춤을 향한 열정과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이 함께 마련한 공연무대라서 더욱 뜻 깊고,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을 찾아주셔서 한국의 무용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클래식, 무용, 국악, 인형극, 재즈, 탈춤, 궁중다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6회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예인의 명작 ·명무전" (프로그램 /출연진)

1. 전주부채춤 / 이해원

장인숙 안무로 초연되었던 전주부채춤은 전주의 시나위 가락과 전주 합죽선, 전북 부안의 명기 매창의 시“이화우 흘날릴제”가 남도 민요 흥타령으로 더해져 살풀이춤의 그늘지고 깊은 호흡의 춤사위와 당당하고 화려한 부채춤의 춤사위가 함께 공존하는 춤이다.

2. 산조 / 이경림

산조는 흠어진 가락을 모아 만든 즉흥형식을 띤 민속악으로 원래 호남 무속의 시나위가락에서 파생되었으며, 가야금,거문고,대금,아쟁 등의 자유로운 음율에 즉흥적으로 추는 조곡형식으로 여인들의 여한과 희로애락이 춤속에 들어있다.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1893-1957) 자신의 가야금 산조가락에 춤을 얹어 성립시킨 것으로 1948 년 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태홍류 산조춤이다. 이 춤은 그 음악의 성격이 우조와 평조 그리고 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엇박의 묘미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우조의 산뜻하고 우아함과 평조의 안정되고 편안함, 그리고 계면조의 섬세함과 아기자기한 멋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절제된 춤 기교가 그 특징으로써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춤사위로 풀어가는 독특한 묘미가 있는 춤이다.

3. 이매방류 입춤 / 이순영

입춤은 사당패와 광대의 춤에서 권번으로 흡수되어 춤 입문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춤으로 자리를 잡아 현재까지 전통을 가꾸어 나가는 구심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승에 따라 입춤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매방, 김숙자, 권명화, 최희선등도 고유한 개성과 독특한 형식을 표현하며 입춤으로 재창조한 인물들이다. 또한 1940 년대 이후 공연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정서를 담은 독자적인 예술춤으로 정착하여 왔다. 이매방류 입춤은 전통의 기본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굿거리 장단으로 구성되나 성주풀이가 가미되어 있다. 이매방류 입춤은 기교적이며 호남 지방예술의 전통 멋이 함축돼 있는 독자적 양식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4. 장고춤 / 이해원

1952 년 초연된 김백봉류의 장고춤은 우리민족의 고유 타악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악기로서 궁편과 채편의 음율이 마치 음과 양같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며 음의 조화를 이룬다. 장고를 메고 흥과 멋으로 변주되어 지는 가락에 아름다운 테크닉을 연희한다.

5. 흥애수건춤 / 송미숙

2000 년 8 월 21 일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34 호 안성향당무중 흥애수건춤은 여인들의 삶을 백단(白丹)수건으로 한 맺힌 삶의 고뇌와 역경을 헤쳐 나가는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고난을 극복한 후에 새 삶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승화시킨다는 춤이다. "살을 푼다."는 살을

맞는다는 수동적 의미와 그 맞은살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동적인 의미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 속성 또한 '한'과 '흥'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승화시키는 인간 본연의 이중구조적 감정을 작품화한 것이다. 장단은 진살풀이, 살풀이, 자진살풀이 장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복색은 옥색 한복, 자락괘자, 봉두포, 백단수건을 들고 추는 경기도 안성의 살풀이춤이다.

6. 원향지무 / 이경림

이 춤은 시나위가락과 자진모리장단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춤사위는 눌러주는 무거운 발디딤과 우아한 춤태와 아름다운 기교와 섬세함을 지닌 지방예술의 춤사위를 바탕으로 정, 중, 동이 넘쳐흐르는 생명력 넘치는 춤이다.

7. 승무 / 김응화

중요무형문화재 제 27 호로 지정(1968 년 12 월)된 승무는 풍부한 예술성, 춤가락의 다양성, 반주음악의 다양성 등의 특성으로 인한 아름다운 공간성 등으로 세월이 거듭할수록 그 예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승무는 전통춤의 핵심을 아우르는 춤의 기본인 동시에 춤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장구한 역사와 함께 생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춤을 통해 민족의 완벽한 곡선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유연한 곡선은 즐기차게 우리민족의 금지와 감수성의 바탕을 이루어오면서 정착됨을 알 수 있다.

8. 쇠춤 / 양승미

쇠춤은 농악의 팽가리, 징, 장고, 북 악기의 구성으로 농악놀이의 형식 중 팽과리(진쇠)라는 악기를 독립적으로 고집어내어 발놀림,팔놀림,몸놀림과 너울사위와저정거리기 등을 춤사위로 접목시켜 춤의 느낌과 빠름을 굿거리, 동살풀이, 휘모리 장단에 맞춰 흥겹고 신명나게 풍류 한마당을 표현한 춤이다.

9. 모듬북 / 김응화 무용단

모듬북공연은 농악의 한 부분으로 공연되어오던 북놀이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다양한 북가락을 춤동작과 함께 무대화시킨 작품으로 북가락 하나만을 사용하는 북놀이를 재구성하여 쌍채북가락을 사용하여 북을 두드려서 한국인의 흥과 신명을 한껏 돋우며, 음악적 효과를 한층 더한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주요출연진 약력>

송미숙

현)국립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국립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박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
국가무형문화재 제 12 호 진주검무 이수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34 호 안성향당무 이수자
사)한국국악협회 무용분과 분과위원장
제 10 회 한발전국국악제 대통령상
제 1 회 한국미래춤학회 미래대상
제 3 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김응화

Korean American Dance Association 회장
김응화 무용단 단장
국가무형문화재 제 27 호 <승무> 이수자
전통 무형문화 해외 명예 전승자
한영숙 춤 보전회 미국 남가주 지회 처장

양승미

명지대학교 예술종합원 외래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 92 호 태평무 이수자
한국전통예술위원회 상임이사
제 8 회 전통무용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전)한국문화재단 예술단 예술감독

이경림

현)진주교육대학교 외래교수

전)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제 21 회 경기국악제 무용부문 대상

Royal Operra House, Muscat 참가

19th Virginia Art Festival 참가

8th SooRyu Dance Festival Canada Arirang

이해원

전북대학교 및 동대학원 박사

이해원무용단 아움 대표

사)한국춤협회 이사

전북무형문화재 제 15 호 호남살풀이춤 이수자

제 40 회 신인무용콩쿨 수석상

제 1 회 김백봉춤 전국 무용콩쿨 금상

제 3 회 논개 전국 무용콩쿨 최우수상

이순영

현)Korean American Dance Association 부회장

이순영 우리춤 연구소 원장

국립정통예술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무용과

전)국립무용단 단원

김명원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전)문화체육관광부 국악방송예술단 악장

현) 무악풍류 대표

2007 순창전국국악대전 문화관광부장관

2010 대한민국 젊은예술상

2015 동경 전통예능교류경연대회 최우수상

2016 아시아문예대상

/끝/